


사람을 다시 보다, 세상을 연결하다, 내일을 준비하다

 국립김해박물관 Gimhae National Museum	■ 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실 김민철 학예연구사 Tel 055-320-6834 oasis1982@korea.kr
	■ 보도일자: 2021. 10. 19.(화) ■ 따로 붙임: 사진 자료 ■ 총 3쪽

누구나, 어디서나

모두를 위한 박물관
MUSEUM FOR YOU

국립김해박물관 2021년 가야학술제전 ‘창원 다호리유적 재조명 I -금속기’ 학술심포지엄 개최

국립김해박물관은 “2021년 가야학술제전”의 네 번째 순서로 “창원 다호리유적 재조명 I -금속기” 학술심포지엄을 10월 22일(금) 오후 1시부터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참여 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하며, 국립김해박물관 공식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립김해박물관의 중장기 연구과제인 ‘가야문화의 통사적 복원’을 위해 연차적으로 기획하였으며, 그 첫 번째로 다호리 유적에서 출토된 금속 유물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5개 주제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는 「철제 농공구를 통해 본 다호리유적」(김동일, 목포대학교)으로 다호리유적 목관묘 출토 철제 농공구를 정리하고, 중국 자료를 검토하여 그 조형에 대해 추정하였다. 그 결과, 중국으로부터의 일방적 수용이 아닌 고조선 및 한반도 남부 사회의 주체적인 입장에서 전통적인 부장품을 대체한 것으로 보았다.

두 번째 주제는 「창원 다호리유적 출토 철제무기와 이형철기의 이입과 전개」(김새봄, 영남대박물관)이다. 발표자는 다호리 유적 출토 철제 무기, 용도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철기들이 영남 각지에서 확인되는 현상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철기제작과 유통·보급, 그리고 상징성이 강한 비실용적 철기들이 확산되는 현상을 원삼국시대 진·변한 소국 네트워크가 형성된 것의 반증임을 논하였다.

세 번째 주제는 「창원 다호리의 청동기와 세형동검문화」(김효정, 부산대학교)이다. 발표자는 다호리 유적에서 철기는 분묘 의례의 대표적 부장품이며, 이전 시기 청동기가 지닌 위상을 대체하는 양상을 지적했다. 이는 실용

물품으로서 철기를 피지배층도 소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배층은 양적 확대를 통해 그 위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 이전 시기 세형동검문화에서 변화된 양상임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의례의 변화가 생업구조, 국제 네트워크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네 번째 주제는 「한반도 남부지방 출토 검과형검초의 특징」(김민철, 국립김해박물관)이다. 다호리 유적을 비롯하여 서력기원 전후 한반도 남부지역에서는 나무로 만든 대나무 마디 형상의 칼집, 이른바 칼손잡이모양(劍把形) 칼집이 출토된다. 이번 발표에서는 호서·호남지방과 영남지방에서 출토된 칼집의 특징과 제작기술을 검토하였다. 양 지역은 검과형 칼집을 제작하는 전통은 공유하고 있었지만 각 지역별로 세부적인 제작과정에 큰 차이가 있음을 재차 확인하였다. 또한 칼집 제작 공정에 관한 기왕의 연구성과를 살펴 쟁점을 부각시키고, 제작공정 복원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였다.

다섯 번째 주제는 「창원 다호리유적 출토 진·변한 재갈의 특징과 계통」(윤서경, 국립대구박물관)이다. 원삼국시대 영남지방 목관묘에서는 입에 물려 말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재갈이 출토되기 시작한다. 발표자는 현재까지 진·변한 지역에서 재갈 출토사례가 가장 많은 곳이 다호리 유적임을 지적하고, 다호리 출토 재갈의 형태와 구조적 특징을 살폈다. 그리고 이전 시기 출토 사례가 없는 새로운 문물인 재갈의 계보 추적을 시도하여 형태, 재질, 제작기법상의 특징을 근거로 위만조선계로 파악할 수 있음을 논하였다.

이번 학술심포지엄은 진·변한 대표유적과 유물에 대한 연차적 학술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가야문화사의 통시적 제고를 위해 마련되었다. 이러한 학술 성과는 향후 가야사 복원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실 담당자 김민철(055-320-683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국립김해박물관 가야학술제전

창원 다호리유적 재조명 I -금속기-



2021. 10. 22.(금)
13:00~18:00



철제 농공구를 통해 본
다호리유적
김동일(목포대학교)

한반도 남부지방 출토 검
파형검초의 특징
김민철(국립김해박물관)

창원 다호리 출토 철제무기와
이형철기의 이입과 전개
김새봄(영남대학교)

창원 다호리 유적 출토
진 변한 재갈의 특징과 계통
윤서경(국립대구박물관)

창원 다호리의 청동기와
세형동검문화
김효정(부산대학교)

종합토론

좌 장 : 김재홍(국민대학교)
토론자 : 이동관(국립경주박물관), 김훈희(울산문화재단연구원),
허준양(국립경주문화재단연구소), 박정호(경산시청), 강나리(부산대학교)



국립김해박물관 공식 유튜브 생중계